

여성이 이야기하는 방법: 『제인 에어』와 『테스』에서 나타나는 여주인공들의 목소리

한희승

1. 제인과 테스의 위치

『제인 에어』(*Jane Eyre*)와 『더버빌가의 테스』(*Tess of the D'Urbervilles*. 이하 『테스』)는 둘 다 여성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규정하고 그 정의 속에서 그녀를 통제하려는 남성 인물들과 이러한 남성 인물들과의 관계 속에 놓여있는 여성을 다루고 있다. 『제인 에어』에서 로체스터는 처음에는 제인보다 높은 사회적 지위와 부를 이용하여 명령을 통해 그녀의 몸을 통제하고자 하였고, 나중에는 “사랑”이라는 이름 하에 그녀를 자신이 원하는 대로 명명(命名)하였다. 세인트 존 역시 제인을 자신의 이상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도구로 보았을 뿐만 아니라,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결혼을 앞세워 결국에는 그가 그녀의 섹슈얼리티를 소유하고 통제하고 싶은 욕망이 있음을 보였다. 우리는 이와 같은 남성 인물들의 모습을 『테스』에서도 찾을 수 있다. 우선 알렉은 시선으로 끊임없이 테스의 육체를 탐하며 자신의 성적 욕망을 그녀에게 투영하여 그녀를 순전히 성적인 노리개 혹은 요부로만 파악한다. 반면 엔젤은 테스에게서 육체를 지워버리고 그가 생각하는 순결한 여인의 모습을 덧씌워, 테스의 “진정한 자아가 아닌 [그녀의] 상(image) 속에 있는 누군가”를 사랑할 뿐이었다(214). 결국 알렉과 엔젤 모두 자신의 목적이나 욕망에 맞게 그녀를 규정하며 통제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두 소설이 비슷한 구조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소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두 소설의 여주인공에 대한 많은 비평가들의 평가는 비교적 분명하게 나뉜다. 우선 많은 여성주의 비평가들은 전통적으로 『제인 에어』를 여성주의에서 큰 성취를 이룬 작품, 즉 일종의 여성주의 선언(feminism manifesto)으로 놓았다. 본격적인 여성주의 비평의 시작을 열었다고 할 수 있는 길버트(Sandra Gilbert)와 구버(Susan Gubar)는 『다락방의 미친 여성』(*The Madwoman in the Attic*)에서 『제인 에어』를 “반항적인 여성주의”(338)

가 드러나는 소설로 보았고, 카플란(Carla Kaplan)은 이 소설이 “여성주의 정전에서 특권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것이 “주체의 혁명적인 선언(revolutionary manifesto of the subject)”으로 읽힌다고 보았다(72). 암스트롱(Nancy Armstrong) 역시 『욕망과 가정 소설』(*Desire and Domestic Fiction*)에서 소설의 결말이 “여성을 지배하는 남성 중심을 당연시 여기는 전통적인 위계질서의 붕괴”를 그렸다고 분석했다(53). 그리고 이러한 분석의 중심에는 단연 자신의 주장을 똑바로 얘기하는 제인이 있다. 이와는 다르게 여성주의 비평가들은 주로 『테스』에서 드러나는 (작가인 하디로 추정되는) 서술자의 남성중심적인 시선과 여주인공인 테스의 수동성을 문제 삼았다. 『테스』에서 테스를 바라보는 서술자의 시선에 대해 보멜하(Penny Boumelha)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찌르고, 찢고, 판통하는 남근 이미지가 ... [테스]의 내재된 섹슈얼리티에 대한 서술자의 매혹과 그녀를 소유하기를 원하는 서술자의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것”(120)이라 비판하였고, 퍼스(Lynne Pearce) 또한 “서술자가 남성 인물들의 에로틱한 관음증을 공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36)고 말하며 남성 서술자의 응시가 갖고 있는 폭력성을 이야기했다. 퍼스는 테스에 대해서도 그녀가 “남성 구혼자들에게 의해 육체적으로 조종”될 뿐이며, 결국에는 자발적으로 힘을 포기하게 되는 수동적인 희생자에 그친다고 비판하고 있다(39). 테너(Tony Tanner)의 경우 확실하게 테스가 초라한 희생자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녀가 자연과 사회의 공모로 희생되었다고 말하는 점에서 테스를 제인과는 다른 “희생자”로 보는 관점을 공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418).

이처럼 비슷한 환경에 놓인 제인과 테스에 대한 평가 내지는 반응이 다른 이유는 그녀들의 환경,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녀들의 목소리를 지우고자 하는 남성들에 대한 제인과 테스의 반응이 다르게 보이기 때문일 것이다. 제인은 푸비(Mary Poovey)가 지적했듯이 “그녀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적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140). 다시 말해, 그녀는 로체스터와 세인트 존의 시선과 규정 속에서도 이에 포섭되지 않는 그녀 자신을 직접적인 말과 글로써 이야기하였다. 그녀가 어린 시절 리드 부인의 억압 속에서 “나는 말해야만 한다”고 강하게 생각한 장면이나 로체스터의 회롱에 굴하지 않고 자신을 주장하는 모습 등은 소설에서 가장 인상 깊은 장면들 중 하나라 할 수 있다(36). 이에 반해 테스는 알렉과 엔젤의 관계 속에서 그녀 자신의 목소리를 거의 내지 못하고, 남성들의 선택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끌려 다니는 것처럼 보인다. 그녀는 제인처럼 “여성도 남성이 느끼는 것과 같이 느낀다”고 강하게 남녀의 평등을 주장하는 목소리를 내지도 않고 엔젤과 대등하게 말싸움 혹은 말장난을 벌이지도

않는다(109). 즉, 우리는 소설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전하는 테스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찾기 힘들다.

그러나 테스가 제인과는 다르게 말과 글로써 직접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내지 않는다고 하여 그녀를 단순한 희생자의 위치에 놓는 것은 부당하다. 소설에서 인물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방법으로는 직접적인 발화나 서술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인물은 침묵하는 순간에도 행동을 통해서 자신을 표현할 수 있으며, 그나 그녀를 둘러싸고 있는 배경이나 풍경을 통해서도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심지어 말을 하면서도 다른 의미를 전달할 수도 있다. 이러한 방법은 특히 애초에 자신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 여성의 경우에 더욱 유용하다. 소시르(Ferdinand de Saussure)를 위시한 구조주의나 후기 구조주의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언어의 "의미는 사회적으로 구성되었고, 따라서 의미 체계의 사회적 구성은 사회 구조 그 자체와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Belsey 42). 그렇다면 여성이 가부장적인 사회가 구성한 언어를 사용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낸다는 것에는 한계와 위험이 따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제인의 경우와 같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목소리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테스의 목소리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무시하고 테스를 단순히 제인의 반대편, 다시 말해 초라한 피해자로 위치시킬 경우, 우리는 그녀를 오해할 뿐 아니라, 다른 침묵하고 있는 혹은 다르게 말하고 있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놓칠 위험이 있다.

이 글은 제인과 테스가 어떻게 때로는 같은 그리고 때로는 다른 방식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살펴본다. 우선 제인은 마음표 속의 말과 함께 자서전이라는 글을 통하여 그녀의 목소리를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드러낸다. 테스 역시 이러한 모습이 보이지만, 제인과 비교해 봤을 때 이는 미약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 차이가 제인과 테스가 놓인 환경의 차이 — '개인화된' 세계에 사는 제인과 사회 '속'에 묶인 테스 — 에서 비롯되었음을 밝힌 후, 테스의 말과 행동 그리고 모습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을 설명한다. 최종적으로 제인과 테스가 남성들의 규정과 통제를 벗어나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2. “말”하는 여주인공: Speak I must

앞에서도 간단히 살펴보았듯이, 제인은 “말하는” 인물이다. 그녀는 여러 억압적인 상황 속에서 끝까지 말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이것이 불가능해지더

라도 글이라는 또 다른 수단을 통해 좀 더 정교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었다. 이를 카플란은 브론테(Charlotte Brontë)가 제인을 통해 그동안 “잊혀지고, 침묵되고, 오해 받거나 평가 절하된 여성들의 목소리를 회복”하고 있다고 보았다(25). 그만큼 제인의 목소리는 이 소설에서 두드러진다.

말하는 주체로서의 제인은 그녀가 어렸을 때부터 강하게 나타난다. 그녀가 어린 시절을 보낸 게이츠헤드는 그녀에게 “침묵할 것”(7)을 종용하는 공간으로, 이 침묵의 억압은 특히 “폭군”(11)과 같은 존으로 형상화 된다. 그는 나이는 비록 어리지만 이 가정에 존재하는 유일한 남성으로, 이 후 로체스터와 세인트 존으로 이어지는 가부장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어린 제인은 그녀의 등장에서부터 이러한 억압적이고 비합리적인 가부장의 명령에 반항하는 목소리를 낸다. 게다가 그녀의 목소리는 단순한 감정적 폭발이 아닌, “살인자,” “노예 감시자,” 그리고 “로마 황제”와 같은 비유를 통해 문학적 그리고 역사적 힘을 얻어 오히려 존을 침묵시킬 정도의 힘을 갖고 있다(11). 발화에 대한 의지는 그녀가 리드 부인에게 대항할 때 다시 한 번 등장한다. 그녀는 (브루클허스트씨나, 로체스터, 그리고 세인트 존이 그러했던 것처럼) 리드 부인이 그녀를 잘못 규정하고 통제하고자 할 때, “말해야 한다 나는”(Speak I must)이라는 강한 의지를 품고 리드 부인에게 반항하였다(36). 이 후 제인은 이러한 자신의 말을 “자신이 쟁취한 첫 번째 승리”로, 그리고 그녀 자신을 “전쟁의 승리자”라고 표현함으로써, 그녀의 말이 억압적인 사회에 대한 무기이며, 앞으로도 그녀의 목소리와 사회 사이의 “전쟁”이 계속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37).

제인의 말은 이처럼 어린 시절부터 강한 인상을 남기지만, 이것이 언제나 효과적인 것은 아니었다. 실제 그녀는 목소리를 낸 후, 붉은 방에 갇히거나 그녀의 유일한 혈육인 존 에어와의 연결이 리드 부인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는 것과 같은 불이익을 당한다.¹⁾ 또한 그녀는 자신을 정확하게 말로 표현하는데 실패하거나 이것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리드 부인이나 브루클허스트에게 그녀의 내러티브를 넘겨 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기도 하였다. 다시 말해, 직접적인 “말”로는 그녀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이 온 것이다. 이렇듯 말로써는 표현하기 힘든 부분을 대신 이야기하는 것이 제인의 “글”이다. 그녀는 로우드에서 브루클허스트의 명령에 의해 말을 하지도 못한 채, 굴욕적으로 단상 위에서 있는 벌을

1) 리드 부인은 임종의 순간에 존 에어의 편지를 제인에게 보여주며, 그녀가 “갑자기 뛰어 올라 [그녀의] 마음 속에 있는 독을 쏟아냈을 때의 감정을 잊을 수 없어” 제인에게 이 편지를 전하지 않았다고 밝힌다(239). 이는 아이러니하게도 그녀의 말로 인해 제인이 주체를 좀 더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수단을 잃었음을 보여준다.

받는다. 자신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낼 수 없는 상황에 그녀는 괴로워하지만, 이내 오히려 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성인이나 영웅”으로 비추어짐을 깨닫고 “고개를 뺏뺏이 들며 단상 위에 굳건히 서있을” 수 있게 된다(67). 제인은 비록 이러한 생각이나 느낌을 다른 사람에게 말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녀의 글을 통해 그녀가 속으로는 사회적 압박에 결코 굴복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글을 통해 자신의 목소리 내기를 배워가는 모습은 그녀가 템플 선생님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을 들려주는 장면에서도 드러난다. 여기서 그녀는 앞서 감정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분출하여 말한 것과는 달리, “억제되고 단순화 된” 목소리를 통해 “더욱 신뢰성 있게” 말을 하였다(71). 이는 그녀가 자신의 말을 “편집”(editing)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고, 이 과정은 곧 “글과 관련된 엄밀한 자기 반영”의 과정이다(Kreilkamp 134).²⁾ 그녀는 이제 글이라는 수단을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그녀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다.

이후 제인의 말과 글은 로체스터와 세인트 존의 관계 속에서도 그 힘을 잃지 않고 그녀의 목소리를 내는 수단이 된다. 특히 말은 그녀와 로체스터의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것은 이들을 연결해주기도 하고, 동시에 그녀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덧씌워진 남성의 지배 욕망에 굴복하지 않게끔 해준다. 제인이 말을 통해 남성의 욕망과 통제를 벗어나고자 하는 모습은 로체스터가 그의 의도대로 그녀를 틀 지우고자(frame) 하는 욕망이 절정을 이루는, 그녀를 꾸미는 장면에서 잘 드러난다(Vol. 2, Ch. 9). 이 장면에서 그는 그녀를 아름다운 귀부인으로 꾸미며 그의 “천사”(260)나 “작은 소녀”(263), “요정”(267), 심지어 술탄의 후궁(269)으로 만든다. 그녀는 이렇게 자신을 그가 원하는 귀부인의 모습으로 만들려는 그의 행동에 맞서, 자신이 그렇게 치장할 경우 “자신은 더 이상 [그의] 제인 예어가 아닌, 할리퀸 자켓을 입은 원숭이가 될 것이다”라고 말한다(259). 또한 그녀는 자신과 그의 관계를, 연인의 실체를 잘못 파악하여 관계가 파탄에 이르는 “헤라클레스와 삼손의 연인들”에 비유하여, 그의 행동이 못마땅하고 이 관계가 지속될 경우 행복한 연인이 될 수 없다는 자신의 생각을 드러낸다(261). 이렇듯 그녀가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그에게 대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를 알아채지 못하자 (혹은 계속 무시하자), 그녀는 “보석을 보내지 말고,

2) 크레이캬프는 남성이 모든 힘을 쥔 사회에서 여성이 정의를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은 말보다는 글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제인의 성장은 말의 무능력을 깨닫고 보다 나은 작가로서 발전하는 것이다. 필자는 말의 부정확성 내지는 말 자체가 갖고 있는 관습성으로 인한 한계를 인정하지만, 제인은 이 한계를 인지하여 말을 버린다고 보다는 오히려 남성의 언어를 획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나에게 장미 화환을 씌우지 말아주세요”(261)라고 말하거나 “나는 [당신의 할렘에서] 노예가 된 그들에게 자유를 설파하러 선도를 갈 준비를 할 거예요. ... 나는 폭동을 일으키겠어요”(269)라고 확실하게 그녀의 생각을 전달한다. 즉, 그녀는 직접적으로 목소리를 내어 과감하게 로체스터가 규정하는 틀을 거부하고 “원숭이”가 아닌 자신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제인은 세인트 존이 그녀를 강제할 때에도, 강한 말을 통해 그를 거부하였다. 그녀는 그가 청혼할때 방어적으로 이를 거절하다가, 마침내 “나는 당신의 사랑에 대한 개념을 경멸해요. ... 나는 당신이 주는 허위의 감정을 경멸합니다 ... 그리고 나는 당신이 그것을 주었을 때 당신을 경멸해요”라고 강하게 그를 비난한다(408). 이렇듯 제인은 직접적인 말을 통해 그야말로 이때까지 억눌려 왔던 여성들의 목소리를 통쾌하게 회복하고 있다.

물론 앞서 살펴보았듯, 남성 인물들과의 관계에서도 제인의 목소리는 말 뿐만 아니라 글을 통해서 드러난다.³⁾ 다시 말해, 독자는 제인이 로체스터에게 직접적으로 반항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도 그녀의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그녀가 “로체스터 그 자신을 새로운 텍스트로” 삼는 장면, 즉 그녀 역시 그를 자신의 시선 속에서 관찰하고 파악하고자 하는 부분이다(Bock 84). 이는 그녀가 그를 처음 만나는 장면에서 잘 드러난다. 그녀는 글을 써서 독자에게 전달하는 화자로서 그의 생김새를 묘사하는데, 여기에는 객관적인 묘사뿐만 아니라 그녀의 주관적인 반응이 섞여 있다. 이것은 로체스터에 대한 그녀의 느낌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그녀 역시 남성들과 같이 시선의 주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후에도 “자신은 보이지 않고 관찰하기 위해 커튼에 가려 한 쪽으로 서 있으려고 조심”(166)했다는 얘기가, “나는 나의 주인(로체스터)의 얼굴을 살

3) 그녀가 테스와는 달리 글을 통해 자신의 주체를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은 상당부분 이 소설이 자서전의 형식이라는 점에서 기인한다. 자서전은 일종의 자기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데, 푸코는 이에 대해 고백을 “자아의 기술”(technology of the self)로 보았다. 이는 다시 말해, 고백(confession)이 자신을 드러내는 것(self-disclosure)을 자유롭게 하고 조사와 해석을 위하여 권위자들에게 한 사람의 “자아”를 표현할 수 있게 해 준다는 것이다(qtd. in Kaplan 94). 여기서 우리는 자서전이라는 형식이 갖고 있는 두 가지의 미를 유추해 낼 수 있다. 첫 째는 자서전이 글 쓰는 이의 주체를 자유롭게 강하게 확인시킬 수 있다는 점이고, 둘째는 자서전이 글 쓰는 이가 주체를 대중에게 보여 조사 받고 싶은, 즉 인정 받고 싶은 욕구가 강함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즉, 제인은 자서전이라는 글을 통해 그녀의 주체를 굳이 발화를 통하지 않고도 전달할 수 있지만, 이는 그만큼 그녀가 자신의 주체를 글로 기록해야만 할 정도로 사회에서 억압을 받고 주체에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음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퍼보곤 했었다”(247)라는 그녀의 글로써 이루어지는 고백을 통해 우리는 그녀가 마치 시선(gaze)으로 여성을 파악하여 점유하려 했던 남성과 같은 위치를 취했음을 알 수 있게 된다.⁴⁾ “글”이 보여주는 제인의 목소리는 “여성도 남성이 느끼는 것처럼 느낀다”로 시작하는 유명한 대목에서 보다 명확하게 드러난다(109). 울프를 비롯한 몇몇 비평가들은 이 부분이 글 전체에서 단절(break)을 일으킨다고 보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는데, 사실 이 부분이야말로 제인이 말이 아닌 글을 통해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다고 생각하는 그녀의 목소리를 보여주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세인트 존이 신과 사회라는 거대 담론에 의지하여 그녀를 침묵시키는 것처럼 보일 때도, 그녀는 침묵 속에서 “그의 [논리의] 틀리기 쉬운 성질(fallibilities)”(406)을 찾아냈으며 이로써 그녀는 “자신이 ... 저항할 수 있는 그 사람(세인트 존)과 동등하다(equal)”(406)고 글로 쓴다(406). 제인의 글은 이처럼 때로는 그녀의 말을 보충하는 역할을, 그리고 때로는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을 더욱 대담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제인의 목소리대기에서 말과 글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이해한다면, 우리는 많은 논란을 낳고 있는 『제인 에어』의 결말을 다시 볼 수 있게 된다. 『제인 에어』가 앞서 말했듯이 많은 여성주의 비평가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을지라도, 제인과 로체스터의 결혼으로 끝을 맺는 소설의 결말에 대해서는 비평가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이 결말을 비판적으로 본 비평가들은, 브론테의 주요한 충동은 “열정적인 자아 성취를 사회와 도덕의 관습이 불편하도록 보존하는 조건에서 처리하고자 한 것(to negotiate passionate self-fulfillment on terms which preserve the social and moral conventions intact)”이라는 이글튼의 의견의 연장선상에서 결말을 사회와의 타협으로 보았다(qtd. in Kaplan 89). 다시 말해, 그녀가 결국에는 가부장적 사회를 벗어나지 못하고 ‘가정화’(domesticate)되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제인의 결혼을 쉽게 일반적인 사회의 결혼으로 치부하기는 어려울 뿐더러, 그녀는 오히려 결혼을 통해 더욱 완벽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그녀가 자신의 결혼 생활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드러난다. 그녀는 화재로 시력을 상실하고 한 쪽 팔을 잃은 로체스터에게 돌아와 그와 함께 사는 생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4) 이 외에도 “나는 그의 얼굴에서 감사함을 찾아낸(detect) 기억이 없다”(200 필자 강조)라는 그녀의 말이나, “(제인)의 계속된 자연스럽지 못한 한 사람의 움직임에 대한 관찰”(231)이 싫었다는 리드 부인의 말은 그녀가 시선을 이용한 인물이었음을 입증한다.

내 영혼은 흥분하였고, 나는 그에게 저녁식사 동안 그리고 이 후에도 즐겁고 편안하게 오랫동안 이야기 하였다. 그에게는 어떤 위협적인 제한도, 즐거움과 생생함의 억압도 없었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그에게 적합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완벽하게 편안해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은 그에게 위안을 주고 그를 기운 나게 하는 것처럼 보였다. 기쁜 의식이여! 그것은 삶을 가져다 주었고 내 모든 본성을 빛나게 했다. 그의 존재 속에서 나는 완전하게 살았고, 그는 나의 존재 속에서 살았다.

My spirits were excited, and with pleasure and ease I talked to him during supper, and for a long time after. There was no harassing restraint, no repressing of glee and vivacity with him; for with him I was at perfect ease, because I knew I suited him: all I said or did seemed either to console or revive him. Delightful consciousness! It brought to life and light my whole nature: in his presence I thoroughly lived; and he lived in mine. (436-37)

제인은 로체스터와의 현재의 생활에 대해 완벽한 만족감을 표시하고 있다. 그것의 가장 큰이유는 그녀가 “어떤 위협적인 제한도, 즐거움과 생생함의 억압도 없”이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그녀가 말한 억압은 좁게는 세인트존의 제재를 말하는 것일 테지만, 좀 더 넓게 보면 앞서 그녀를 침묵시키고 단순한 청자로 전락시켰던 로체스터의 억압을 상기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이전에는 그가 시선으로 그녀를 규정하고 강한 말로써 그녀를 침묵시켰다면, 시력을 잃은 지금 그는 그녀의 모습과 말을 통제할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렇기에 그는 “이제 좋은 옷과 보석은 신경 쓰지 말라”(446)고 제인에게 말하고, 그녀의 존재를 확인하고 나아가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 받기 위하여 그녀에게 “다시 말해 달라!”(433)고 요청할 수밖에 없다. (그가 팔 한쪽을 잃었다는 점은 그의 글 쓰는 능력도 현저하게 떨어졌음을 암시한다) 처음부터 사회의 경계에 위치한 바이런적 영웅이었던 로체스터는 이제 완전히 『미들마치』(Middlemarch)의 윌(Will)처럼 “현대 도시 세계에서 통용되지 않는(unavailable) 남성성의 형태”를 취해, 더욱 관습적인 사회에서 벗어난 개인이 된 것이다(Armstrong 106). 로체스터의 이러한 변화는 적극적인 발화자이자 글을 쓰는 작가인 제인의 능력을 활짝 꽃피운다. 앞서 말과 글이 그녀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데 얼마나 중요한 도구였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이제 로체스터라는 완벽한 청중을 갖게 된 제인의 결혼 생활은 말 그대로 그녀의 “모든 본성을 빛나게” 하는 것이다. 제인이 자신의 말에 자유와 통제력을 갖게 되었음은, 그녀가 그에게 쏜필드를 떠난 후의 일을 모두 말하

지 않고 “자신의 마음 속에 묻어 두었다”는 점에서도 나타난다(448). 이전에는 로체스터가 정보를 쥐고, 숨겨서 힘을 가졌다면, 이제는 제인이 보다 많은 정보를 통제하고 있다. 암스트롱의 표현을 빌자면 이제 그녀는 “언어의 권력”을 획득했다(47). 『제인 에어』는 제인이 보다 완벽하게 그녀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는 과정을 그린 소설인 것이다.

반면 테스의 직접적인 목소리는 제인의 그것만큼이나 강력하거나 인상적이지 않다. 다시 말해, 우리는 테스가 알렉이나 엔젤에게, 제인이 로체스터에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신의 발 앞에 똑같이(equal) 서 있어요”라고 말할 것을 기대하기 힘들다(253). 더욱이 그녀의 생각은, 제인의 그것이 말에서 불가능하다면 글에서 나타나는 것과는 달리, 직접적으로 이야기 된 것이 적기에, 그녀가 속으로 “여성도 남성이 느끼는 것처럼 느낀다”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알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스』에서도 그녀의 목소리가 말과 글을 통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순간이 있는데, 그 중 하나는 그녀가 알렉을 처음 떠날 때이다. 알렉은 그녀가 “너무 늦기 전까지는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었다”고 말하자 “모든 여자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하며 그녀를 그가 생각하는 “모든 여성”의 범주 속으로 쉽게 넣어버린다(77). 이에 그녀는 분개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어떻게 당신이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녀는 맹렬하게 그에게 돌아서서 외쳤다. 그녀의 눈은 (그가 언젠가 더 보게 될) 잠재한 영혼이 그녀의 안에서 깨어난 것처럼 번뜩였다. “오 하느님! 나는 당신을 그 마차 밖으로 차버릴 수도 있어요! 당신은 한 번도 모든 여자가 말하는 것을 어떤 여자들은 [실제]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나요?” (필자 강조)

How can dare to use those words!’ she cried, turning *impetuously* upon him, her eyes *flashing* as the latent spirit (of which he was to see more some day) awoke in her. My God! I could knock you out of the gig! Did it never strike your mind that what every woman says some woman may feel?’ (77)

테스의 이 말은 그녀가 알렉이 말하는 “모든 여자”의 범주에 들어가기를 거부한다는 그녀의 목소리를 매우 분명하고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게다가 이러한 그녀의 모습을 묘사하는 “맹렬하게”나 “번뜩이는 눈” 같은 표현은 폭군인 존과 리드 부인에게 대항하던 어린 제인을 연상시키며, 테스에게도 제인만큼 강력하게 그녀의 목소리를 내는 순간이 있음을 드러낸다. 그녀는 이 후에도 자신에게 돈을

주겠다고는 알렉의 말에 “그렇게 된다면 나는 당신의 피조물(creature)이 되어야만(should) 하겠지요,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겠어요!”라며 직접적으로 말을 통해 그에게 저항한다(77).

엔젤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종종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테스의 “말”을 찾을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장면은 그가 그녀를 아르테미스나 데메테르로 부르면서 그의 이상적인 여인상에 그녀를 맞추어 넣으려고 할 때, 그녀가 짧지만 단호하게 “나를 테스라고 불러 달라”고 말함으로써 그의 행동을 바꾸는 장면일 것이다(130). 테스의 이 말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단순히 그녀의 순간적인 생각이나 느낌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그녀가 자신을 “테스”라는 여인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는, 비록 말과 글을 통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장면이 많지는 않다 하더라도, 테스 역시 자신의 고유하면서도 개인적인 목소리를 갖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엔젤의 규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테스의 목소리는, 그가 그녀를 “농사짓는 여성”으로 한정 지어 그 틀에 맞추어 그녀를 해석하고자 할 때 “자신은 단지 신분에 의해서 농부이지, 본성에 의해 농부인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장면에서도 나타난다(232). 이와 같은 짧지만 명확하며 단호한 그녀의 말을 통해 우리는 그녀가 자신의 목소리를 가진 존재임을 확인하게 되어 침묵하는 그녀의 목소리를 찾을 단초를 마련하게 된다.

3. 그녀들이 놓인 세상

물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테스의 “말”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수동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는 특히 그녀를 제인과 비교해 봤을 때 더욱 그러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테스는 말이나 글을 통해 그녀의 목소리를 전할 수 없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바로 제인과 테스가 각각 놓인 세상이 달랐기 때문이다.

제인은 개인화된 인물이고 비교적 개인화된 환경, 다시 말해 계급이나 경제력 등의 압박이 비교적 적은 세상 속에서 살고 있었기에, 말이나 글과 같은 직접적인 발화 매체를 통해 그녀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가능했다. 즉, 개인화된, 가능한 외부의 조건이나 압력들이 최소화 된 상태에서 그녀는 자신의 내면에 집중할 수 있었고, 또한 언어는 그러한 개인의 생각을 좀 더 투명하게 드러낼 수 있었다. 따라서 제인은 그녀가 말과 글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남성의 언어였다는 인식을 하지 못한 채, 혹은 않은 채, 그 언어를 쓸 수 있게 된다. 우선 그녀는 관습적인 세상에서 한 발짝 떨어져 나온 인물로 많은 부분에서 방랑자의 이미지로 그려

진다. 그녀는 리즈 부인의 집을 나와 로우드를 거쳐 마지막으로 쏘펠드를 나오기까지 “집”이라고 할 수 있는 곳도 혈육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존재도 없었다. 다시 말해 그녀는 그녀가 품고 있는 주체적인 자의식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애초에 사회로부터 떨어진 그녀의 배경과 존재에 의해서 고립된 ‘개인’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푸비 역시 가정 교사로서의 제인의 위치를 논의하며, 그녀의 자립심이나 섹슈얼리티에 관한 문제들이 가정 교사로서의 신분과 얽히지 않도록 “개인화 되어 있음”을 지적한다(137). 이러한 “개인화”를 위한 방법은 사회로부터 고립된 그녀의 배경이나 “이상화된 그녀의 가정 교사 일,” 그리고 그녀를 사회적인 신분이나 재산으로 평가하지 않는 남성들과의 사랑 및 관계이다(Poovey 137). 여기서 “개인화된” 사회란 물론 여성의 개인적인 주체를 쉽게 인정하는 사회를 일컫지는 않는다. 제인이 “개인화 된” 환경에 놓여 있다는 말은 그녀가 계급이나 가난이 지배했던 당시의 현실적인 사회 문제에는 그다지 얽혀 있지 않음을 뜻한다. 실제 그녀가 배고픔으로 고생하는 모습은 쏘펠드를 나온 직 후에만 나타나고, 이 문제도 쉽게 해결된다. 그리고 그녀는 계급과 재산의 차이로 로체스터와 갈등을 보이기도 하지만, 로체스터라는 인물 자체가 사회에서 떨어져 나온 바이런적 영웅임을 생각해 볼 때, 그 갈등은 제인의 주체를 위협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 게다가 자서전이라는 형식은 마틴이 말했던 것처럼, 독자가 “우리 자신의 의견을 형성하기 위해 [서술자]의 어깨 너머를 응시하지(peer) 못하게 만들기”에 우리는 온전히 그녀의 세상에만 집중하게 된다(qtd. in Bock 103).

반면, 테스는 철저하게 당대의 현실 사회에 속한 인물이다. 그녀는 제인과는 달리 노동 계급이며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무엇보다 제인과 다른 점은 테스에게는 ‘가족’이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 가족은 테스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테스가 보살펴야 할 존재로 등장한다. 그녀의 비극의 시작은 술에 취해 아침 일찍 일어나지 못하는 아버지를 대신하여 그녀가 마차를 몰다가 말을 죽게 한 것에서 비롯되는데, 이는 결국 테스의 비극이 그녀의 개인적인 문제로 인한 것이 아니라 가족의 문제로부터 나온 것임을 나타낸다. 테스가 연결된 사회는 비단 작은 가족에 그치지 않는다. 그녀는 가족과 연결된 계급에 묶여 하루 종일 바깥에서 노동을 해야만 하며, 사회적으로 아름답다고 여겨지는 외모로 인하여 어디서든 못 남성들의 시선을 받아 남성 중심적인 사회의 성의식 속에 매일 수밖에 없다. 남성중심적인 노동 시장을 포함한 사회와 그녀가 얼마나 깊게 연관되어 있는지는 특히 기계와 그녀의 육체를 이야기하는 대목에서 드러난다. 테스는 플린트콧-애쉬에서 기계를 갖고 일을 하는 작업을 하는데, 이 때 그녀의 모습은 다음과 같이 묘사되었다.

그녀는 기계 위에서 일하는 유일한 여성이었다. 그녀의 몸은 기계의 회전에 의해 흔들렸고, 그녀의 몸의 모든 근육의 이러한 계속적인 떨림은 그녀가 마비된 몽상에 빠져 그녀의 팔이 의식과는 별개로 흔들리게끔 했다. 그녀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거의 알지 못했고 자신과 위치를 바꾸자는 ... 이즈 허트의 말을 듣지 못했다.

She was the only woman whose place was upon the machine, so as to be shaken bodily by its spinning, and this incessant quivering, in which every fiber of her body participated, had thrown her into a stupefied reverie in which her arms worked on independently of her consciousness. She hardly knew where she was, and did not hear Izz Huett ... offer to change places with her. (333)

테스는 여기서 “만족할 줄 모르는 집어 삼키는 것” 위에 올라타 작업을 하고 있다. 이 기계에 “참여하고 있는” 그녀의 육체는 강한 기계에 비해 매우 연약해 보인다. 그리고 마침내 이것은 “그녀의 의식”을 잃게 만들어 그녀의 육체와 정신이 분리되게 만들었다. 이러한 묘사들에서 우리는 그녀가 기계로 대표되는 남성 중심의 사회 속에 위치할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고, 이것이 훗날 그녀를 파괴할 것이라는 사실도 짐작할 수 있다.

게다가 하디는 그녀를 오래 전 귀족이었던 더버빌 가문과 의식적으로 끊임없이 연결한다. 이는 이 소설의 제목인 『더버빌가의 테스』에서부터 드러난다. 르세르클(Jean Jacques Lecerle)이 지적했듯, 이 제목은, 원래는 테라사(Teresa)였겠지만 시간이 지나 변한(corrupted) 테스라는 이름과 더버빌이라는 과거, 역사의 이름이 함께 묶여 있다(20). 하디가 원래 테스의 이름인 테스 더버필드(Durbeyfield)를 제목으로 쓰지 않고 굳이 그녀의 성을 더버빌로 바꾼 이유는 그만큼 역사적 흐름에 놓여 있는, 언어적으로 말하면 “그녀의 선조의 방언과 현재 그녀의 남성들(알렉과 엔젤)의 표준 영어 사이에 놓인(situated)” 테스의 위치를 보여주고자 함이다(Lecerle 18). 이는 그가 테스를 “역사”라는 인간 사회의 흐름에 놓아, 인간이 구성한 사회 속에 더욱 벗어날 수 없게 그녀를 위치시키고 있음을 나타낸다. 결국 테스가 가축, 계급, 가난, 성, 그리고 거대한 역사라는 촘촘한 거미줄에 묶였다는 사실은, 그녀가 자신의 목소리를 이 모든 거미줄의 총합인 언어로 표현하는 것을 힘들게 만든다. 테너(Tony Tanner)의 말대로 “그녀는 너무나 많은 다른 압력들에 종속되어 ... 적절한 존재의 완전함을 성취하기 힘든” 것이다(427).

테스는 이처럼 제인과는 다르게 사회의 촘촘한 그물망에 걸려 있는 인물이다

로 자신의 목소리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 제인과는 다른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다. 제인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로 그녀의 말과 글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자신이 “그녀 자신의 권리의 주관(subject)이며 그녀의 말과 몸의 주인(mistress)이고 따라서 그녀의 운명의 결정자”임을 주장했다(Lercycle 8). 이는 다시 말해 그녀가 그만큼 남성들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그녀 스스로 남성의 언어를 소유하고 이용하여 남성의 말이나 글과 같은 힘을 획득하고자 했음을 의미한다. 그녀는 그녀 내면에 있는 주체를 언어를 통해 투명하게 드러낼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고, 이것은 언어가 사회에 의해 구성된 것이 아닌 개인화된 것이어서 그것이 여성과 남성에게 똑같은 힘을 줄 수 있는 사회여야 가능하다. 하지만 테스는 개인적인 상황에서도 그녀가 사용하는 언어에 있어서도, 제인과는 달리, 모든 요소가 그녀를 수동적으로 만드는 사회에 속한 존재이다. 따라서 그녀 역시 어머니, 처녀, 미혼녀, 그리고 창녀로 규정되지 않는 자신, 르세르크의 표현을 빌자면 “주체로서의 여성”(woman as subject) 혹은 “빈 중심”(absent center)을 갖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드러내는 방법은 다를 수밖에 없게 된다(8).

테스가 사회에 속한 존재라는 점은, 그녀가 사용할 수 있는 언어 또한 사회의 언어임을 강조하고, 이는 그녀가 직접적인 말과 글을 이용하여 목소리를 내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한 마디로 그녀가 발화할 수 있는 언어는 가부장적 사회의 지배를 받기에, “언어는 테스에게 호의적이지 않다. 그들은 오해를 낳고,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은 해명의 정반대가 된다”(Words do not favor Tess: they createmisunderstanding, and in spite of appearances explanations are the opposite of a clarification, Lecercle 20). 이는 특히 그녀가 엔젤에게 그녀의 과거를 해명하는 부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녀는 말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고자 하였으나, 말을 하면 할수록 진실은 가려지고 그녀는 그의 잘못된 규정에서 더욱 빠져나올 수 없게 된다. 오히려 그녀가 말을 하지 않는 순간에 엔젤은 그녀의 모습과 행동에서 진실을 간간히 엿본다. 테스가 엔젤의 청혼을 거절하는 장면에서도 언어의 부정확성 혹은 무능력은 문제가 된다. 그녀는 엔젤의 청혼을 받고 재차 “나는 당신의 아내가 될 수 없다”고 강하게 거절한다(171). 여기서 그녀가 거절의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수 차례의 거절은 이 자체로 그녀의 목소리이다. 하지만 엔젤은 “여성에 대한 그의 충분한 큰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부정이 종종 강한 긍정의 서막을 의미할 뿐”이라고 생각한다(174).⁵⁾ 결국 그녀는 사회에서 인정 받고 사용되는 언어로는 자신을 전달하는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것이다. 이는 테스가 제인처럼 발화하는 것이 얼마

나 어려운 일인지 보여준다.⁶⁾

4. 다르게 목소리 내기

테스의 언어는 이처럼 사회에 의해 구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녀의 말과 글은 그녀의 생각과 표현 사이에서 그 의미가 미끄러지게 된다. 하지만 트릴링(Lionel Trilling)이 말한 것처럼 각자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진정성”을 보이는 것, 즉 “안과 밖에 같아야 할 필요성이 그만큼 커”졌다(qtd. in 유명숙 69). 그렇다면 그녀가 그녀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남성들의 이분법적인 규정을 넘어선 그녀의 목소리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⁷⁾ 첫 째, 그녀의 행동을 통한 방법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테스를 수동적

- 5) 엔젤의 이러한 생각에서, 우리는 그가 테스를 그저 자신이 안다고 믿는 여성의 범주에 넣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알렉이 그녀를 “모든 여자” 중 한 명으로 지칭한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하디는 엔젤은 자신이 여성에 대한 경험이 많다고 생각했다고 언급함으로써, 테스를 쉽게 범주화하려는 그의 생각을 조롱하며 비판하고 있다. 왜냐하면 앞서 하디는 엔젤이 여자에 대해 판단할 만큼 여성 경험이 풍부하지 않음을 밝혔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의 이러한 여성에 대한 규정은 잘못된 것일 가능성이 큼을 하디는 말해준다.
- 6) 물론 제인도 언제나 자신의 주체를 내세우는 발화가 성공적인 것은 아니었다. 이는 특히 세인트 존의 청혼을 거절하는 장면에서 드러난다. 이 부분에서 제인도 그의 범주에 맞지 않는 자신의 주체를 설명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는 이를 무시하고 더욱 자신의 의견만을 고집하여 그녀를 거의 소유할 뻔 한다. 이 순간 그녀를 구하는 것은 “제인, 제인, 제인”이라고 부르는 목소리였다(419). 이는 텍스트가 힘을 발휘하는 순간이고, 제인이 주체를 주장하는 것이 이 사회에서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이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자세히 설명하겠다.
- 7) 테스에게 알렉과 엔젤의 범주화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있음은 그녀의 겉모습에서 이미 나타나 있다. 그녀의 얼굴에서 두드러지는 부분은 “부드럽고 모란빛 입과 크고 순수한 눈”이다(14). 여기서 입은 알렉의 관심을 제일 끄는 부분으로 판능적인 테스를 드러낸다면, 눈은 엔젤이 좋아하는 부분으로 순수하며 영적인 그녀의 성질을 나타낸다. 우리는 이를 후에 테스의 동생인 리자루를 묘사하는 부분에서, 그녀가 “테스의 영적인 이미지”로 “똑 같은 아름다운 눈을 갖고 있다”고 말하는 부분에서도 알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테스는 성적 매력기 없는 리자루와는 달리 입과 눈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알렉과 엔젤은 각각 그녀의 한 부분만 살필 뿐, 자신들이 보지 못하는 면을 그녀가 갖고 있음을 간과한다. 네메스바리(Richard Nemesvari)는 이러한 “여성의 섹슈얼리티와 순수함의 복잡한 재현”으로서 테스를 보지 못하고 이분법으로 나누는 알렉과 엔젤이 당시 빅토리아시대 남성들의 실패한 남성성과 성적 위선을 드러낸다고 보았다(94).

이라고 기억하는 이유가 그녀의 행동에 기인한 것임을 생각해 볼 때, 그녀의 행동이 오히려 저항적인 그녀의 목소리가 된다는 말은 아이러니하게 들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그녀가 남성들에게 수동적으로 복종하는 순간, 특히 서술자가 그녀의 수동성을 부각하는 장면에서 단순한 복종을 넘어선 무언가를 찾을 수 있다.

우선, 그녀가 알렉을 처음 떠나는 장면을 살펴보자. 이 장면에서 우리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맹렬한 테스의 말을 들을 수 있었다. 그녀는 이처럼 목소리를 내어 알렉의 규정을 거부하고 있지만, 이 언어가 소위 “남성”의 언어인 이상 그녀의 주체를 알렉에게 제대로 전할 수 없다. 그렇기에 그는 그녀의 이러한 말을 듣고도 그저 “잘 알겠다”며 웃고 다시 그녀에게 입을 맞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77). 그의 입맞춤에 대한 요구에 그녀는 순순히 고개를 그를 향해 돌리고, 반대편 뺨도 “똑같은 수동적인 방식”으로 그에게 대준다(78). 서술자는 이처럼 이러한 테스의 모습을 “수동적인”이라고 표현하며 의식적으로 그녀의 수동성을 부각시킨다. 테스 역시 “당신이 나를 얼마나 지배하였는지(mastered) 잘 보세요”라고 말하며 그에게 자신의 복종을 강조한다(78). (여기에는 슬쩍 조롱의 느낌도 들어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표현들에서 그녀 자신과 텍스트가 의도적으로 그녀의 수동적인 행동을 두드러지게 만든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놀라운 사실은 알렉이 오히려 그녀의 ‘수동적인’ 행동들로 인해 “[그녀가] 결코 자신을 사랑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는 점이다(78). 그는 앞서 그녀의 말은 웃어넘기며 무시할 수 있었지만, 그녀의 복종하는 행동에서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그녀의 목소리를 확실히 들을 수 있게 되었다. 그녀의 수동적인 행동이 더욱 효과적인 ‘표현’이 된 셈이다. 알렉이 개종 한 후 엔젤에게 버림받은 테스에게 다시 찾아왔을 때에도 이와 비슷한 장면이 등장한다. 그녀는 이 때 엔젤을 모욕하는 알렉의 말에 화가 나, 마치 “전사”처럼 그에게 장갑을 던졌다(331). 이는 적극적인 저항의 몸짓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내 그녀는 그에게 “이제 나를 처벌하세요! ... 나를 때리고(Whip), 밟아 몽개세요(crush) ... 나는 비명을 지르지 않겠어요(shall)”라고 말한다(332). 이는 그녀의 앞선 전사와 같은 강렬한 저항과 대조되어, 그녀가 다시 남성의 힘에 굴복하고 있는 듯이 보일 수도 있다. (우리는 제인이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상상하기 힘들다) 하지만 이 말을 할 때의 그녀의 눈빛에 “절망적인 저항(hopeless defiance)”이 들어 있었다는 표현이나, 수동적인 복종을 보이는 것치고는 “Whip,” “Crush”와 같은 단어들 너무 강한 느낌을 준다는 점, 그리고 그녀가 “shall”을 사용하여 자신의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는 점 등은, 이러한 그

녀의 행동을 단순한 복종으로 보이지 않게 만든다. 오히려 그녀는 “나는 한 때 너의 주인이었고, 다시 너의 주인이 될 것이다”(332)고 말하며 그녀의 영혼과 육체에 대한 지배를 주장하는 그에게 “회화화(travesty)된 복종”을 줌으로써, “그의 필요(needs)를 조롱하고, 질식 시키(choking)”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Morgan 97). 실제 이런 그녀의 행동에 그는 그녀를 정복할 수 없다는 더 깊은 절망감만을 안고 분개하며 떠날 뿐이다.

테스의 목소리는 또한 서술자가 서술하는 그녀의 모습에서도 나타난다. 『테스』는 『제인 에어』와 같은 자서전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텍스트가 직접 테스의 생각이나 느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텍스트 혹은 서술자는 그녀의 모습을 혹은 그녀를 둘러싼 환경을 묘사하는 과정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문득 드리나는 순간을 장차한다. 이를 풀어 설명하자면, 텍스트가 종종 그녀를 사회로부터 떼어 내어 완전하게 개인화 된 세상에 놓아, 가부장적 사회의 규정이나 범주와 상관없는 그녀의 내면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는 모간(Rosemarie Morgan)도 지적했듯, 그녀가 엔젤의 하프 소리를 듣고 이 소리를 따라 황홀경에 취해 그에게 다가가는 장면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테스가 있던 그 정원의 주변은 몇 년 동안 경작이 되지 않아서, 이제는 축축하고 건드리면 자욱한 꽃가루를 날리는 즙이 많은 풀들로 무성했다. 그리고 이 곳에는 자극적인 향기를 내뿜는 키 큰 꽃이 핀 잡초들이 가득했다. 이 붉고, 노랑고, 보랏빛 잡초들은 경작된 꽃들만큼이나 눈부신 색채를 자랑하였다. 그녀(테스)는 고양이처럼 은밀하게 이 성장의 풍부함을 통해 나아갔다. 치마에는 거품벌레들이 달라붙었고, 발 밑으로는 달팽이들이 밟혔으며, 손에는 우유빛 엉덩퀴와 끈적거리는 유충이 잡혔다. 그리고 사과나무 고목에서 나온 눈 같이 하얀 뱀뱀한 마른 나뭇가지가 그녀의 팔을 문질러 그녀의 피부를 피가 맺힌 듯 빨갱게 얼룩지게 했다. ... 테스는 시간도 공간도 의식하고 있지 않았다. 그녀가 별을 보면서 의도적으로 만들었다고 묘사했던 고양된 상태가 이제 어떠한 그녀의 결심도 없이 왔다.

The outskirts of the garden in which Tess found herself had been left uncultivated for some years, and was now damp and rank with juicy grass which sent up mists of pollen at a touch; and with tall blooming weeds emitting offensive smellsweeds whose red and yellow and purple hues formed a polychrome as dazzling as that of cultivated flowers. She went stealthily as a cat through this profusion of growth, gathering cuckoo-spittle on her skirts, cracking snails that were underfoot, staining her hands with thistle-milk and slug-slime, and rubbing off upon her naked arms sticky blights which, though snow-white on the apple-tree

trunks, made blood-red stains on her skin; ... Tess was conscious of neither time nor space. The exaltation which she had described as being producible at will by gazing at a star, came now without any determination of hers; (122-23)

모르간은 이 장면을 많은 비평가들이 에덴 동산의 신화와 연결하여 해석한 것을 반대하며, 오히려 하디가 “섬세한 패러디를 고안하였다”고 말한다(86). 즉, 테스와 엔젤은 이 장면에서 아담과 이브처럼 합일을 이룬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리되어 존재함을 하디가 보여준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 그녀는 테스가 “처음부터 끝까지 [남성 혹은 인간이 경작해 놓은] 정원에 들어오지 않고 주변에 남아 있었음”을 든다(86). 위 대목에서, 테스는 엔젤의 하프 소리를 듣고 그에게 다가갔지만, 이 행동은 “몇 년 동안 경작되지 않은 ... 정원의 주변”에서 이루어졌다. 그녀는 이후 하프 소리를 따라가면서, 경작된 인간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장의 풍부함”이 넘쳐나는 세계, 다시 말해 개척되지 않은 자연의 영역으로 더욱 깊이 들어간다. 이 속에서 거품벌레, 달팽이, 엉성퀴, 유충 등이 그녀의 몸에 달라붙거나 그녀와 닿아 있는 모습을 길게 묘사한 부분은 그녀가 자연의 한 부분이 되어 가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테스는 이처럼 자연 속으로 들어가 자연과 하나가 됨으로써 “죄가 지워진 원형과 인간이 만든 ‘정원’의 경계를 넘어선 채” 존재하게 된 것이다(Morgan 87). 텍스트는 이처럼 “시간도 공간도 의식되지 않는” 곳, 그녀가 별을 바라보며 사회에 속한 육체와 자유로운 영혼을 분리해 낸 곳을 그녀에게 마련해 주었다.

이러한 사회의 영역에서 벗어난 개인화된 공간에서 테스는 자연을 통해 그녀의 목소리를 나타내고 있다. 이 부분에서 묘사된 자연은 “즐거움 많은,” “눈부신,” “풍부함” 등과 같은 표현에서 드러나듯, 육감적이며 성적인 에너지로 가득하다. “눈처럼 하얀” 가지 그리고 테스의 피부와 이로 인해 “피가 맺힌 듯 빨갱게” 된 자국의 대비는 이 소설에서 내내 반복되는 피의 이미지를 두드러지게 하여, 그녀의 관능성을 밖으로 보이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그녀의 목소리는 이 순간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그녀의 목소리는 동시에 자신의 순수함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이는 그녀가 엔젤의 하프 소리에 깨어난 모습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물론 그는 하프 연주가 끝나고 테스를 본 후에도 그녀의 관능적인 충만함은 알아채지 못하고, 그녀를 “그렇게 슬픈 상상을 구체화하는” 능력을 가진 여인으로만 보았다(124). 그러나 이 장면에서 우리는 자신의 섹슈얼리티와 순수함을 동시에 말하고 있는 그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말이 아닌 행동이나 모습을 통한 테스의 목소리는 결말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제인의 결말을 그녀가 로체스터와 결혼하였다로 요약할 수 있다면, 테스의 결말은 테스가 알렉을 죽이고 사형 당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결국에 그녀가 “사람이 만든 법에 따라” 희생되었다고 하여, 그녀를 수동적인 피해자로만 위치시킬 수는 없다(Tanner 427). 테스는 분명 죽기 직전 사회의 구속들로부터 해방되어 어느 때보다 자유롭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스톤헨지에서 펼쳐지는 그녀의 마지막 모습에서 드러난다.

그들이 [엔젤이 말하기 전까지는 보지 못했던] 그녀가 누워 있는 곳을 보았을 때, 그들은 [그녀의 잠을 방해하지 말자는 데] 반대하지 않았고, 주위의 기둥들처럼 조용히 서서 그녀를 지켜보았다. [엔젤]은 그 둘로 가 그녀 쪽으로 몸을 숙여 기력 없는 작은 한 손을 잡았다. 그녀의 호흡은 이제 빠르고 작았다. 마치 한 여자보다 작은 생명체처럼. 모두 밝아 오는 빛속에서 기다렸다. 그들의 얼굴과 손들은 마치 은빛으로 빛나는 것 같았고, 그들의 나머지 부분은 어두웠다. 그 둘들은 녹회빛으로 빛났고, 초원은 여전히 그림자에 쌓여 있었다. ... 그녀는 일어나, 몸을 털고, 앞으로 나아갔다. 어떤 남자도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준비 됐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When they saw where she lay, which they had not done till then, they showed no objection, and stood watching her, as still as the pillars around. He went to the stone and bent over her, holding one poor little hand; her breathing now was quick and small, like that of a lesser creature than a woman. All waited in the growing light, their faces and hands as if they were silvered, the remainder of their figures dark, the stones glistening green-gray, the Plain still a mass of shade. ... She stood up, shook herself, and went forward, neither of the men having moved. 'I am ready,' she said quietly. (395-96)

알렉을 죽인 후 그녀를 잡으려 모여드는 사람들을 피하다가, 그녀가 자신이 마지막으로 머물 장소로 정한 곳은 스톤헨지였다. 이 곳에서 그녀는 다가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냥 편안히 잠들고, 이러한 그녀의 모습에 추격자들도 그녀의 잠을 방해하지 않고 “주위의 기둥들처럼 조용히” 그녀를 지켜본다. 스톤헨지의 돌 위에 누워있는 여성과 그녀의 주위를 둘러싼 남성들, 그리고 “그림자에” 잠긴 주변과 “은빛으로 빛나는 얼굴들.” 이는 언뜻 고대의 의식을 떠오르게 한다. 물려든 남성들이 사제라면 테스는 태양(신)에게 바쳐지는 제물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장면의 테스의 모습에서 제물과 함께 여신의 이미지를 동시에 느낄 수

있다. 이는 특히 그녀가 해가 뜨자 자연스럽게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는 장면에서 그러하다. 자신의 죽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결코 당황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나아가는 테스의 모습은 죽음을 초월한 행동이고 이는 그녀를 한 인간이 아닌 역사를 넘어선 신화 속의 여신으로 보이게끔 만든다. 그래서 그녀의 존재에 “어떤 남성도 움직이지 않았”던 것이다. 이는 앞서 그녀가 자신의 육체와 영혼을 분리해낸 순간, 그리고 이를 통해 자연과 합일을 이룬 순간과 비슷하다. 앞서 이러한 순간들이 커다란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일시적일 수밖에 없었다면, 그녀는 이제 남성이 정복하고 기록한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pre-historic) 스톤헨지라는 그녀의 “집”에서 역사와 사회를 초월하여 존재할 수 있는 세상에 이른 것이다(393). 따라서 이 순간 역사적이자 사회적인 언어의 구속을 벗어난 그녀의 목소리는 가장 빛을 발하고, 그들을 압도할 만한 힘을 보이게 된다.

인물이 직접적인 말이나 글로써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텍스트가 그 혹은 그녀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제인 에어』에서도 나타난다.⁸⁾ 제인은 물론 테스에 비해 훨씬 자유롭고 독립적인 목소리와 글이라는 표현 수단을 갖고 있지만, 역시 관습적인 사회에서, 특히 사랑이라는 감정적 문제가 결합한 남녀 관계에서 언제나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는 힘들다. 혹은 (테스가 그러했던 것처럼) 그녀가 아무리 목소리를 낸다고 하여도, 그녀의 주체가 로체스터와 세인트 존이라는 남성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 텍스트는 마치 그녀의 이야기를 대신 주장하는 듯이 보인다. 텍스트가 이러한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제인이 자주 경험하는 아이가 나오는 꿈이다. 그녀는 리즈부인의 임종을 맞으러 그녀의 집에 가기 전, 그리고 로체스터와 결혼을 앞둔 상황에서 아이가 나오는 꿈을 자주 꾸다. 이 꿈들은 주로 그녀가 아이를 안고 걷다가 이 아이 때문에 로체스터를 따라잡거나 만나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이 꿈들에 대해 푸비는, 이들이 주로 제인이 부당한 대우로 인해 분노를 느끼기 전에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아이가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에서 여성의 위치로 규정된 의

8) 『테스』에서 텍스트가 테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말하는 것과 『제인 에어』에서 텍스트가 제인의 목소리를 대신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하다. 『테스』는 서술자가 여주인공이 아니기에, 텍스트가 그녀의 목소리를 보여준다고 할 때 텍스트는 거의 서술자 혹은 서술자의 뒤에 숨어 있는 작가인 하디와 동일한 것으로 이야기될 수 있다. 하지만 『제인 에어』의 서술자는 제인이기에, 이 소설에서 텍스트가 서술자를 일컫지는 않는다. 이 경우 텍스트는 작가인 브론테에 좀 더 가까운 개념일 것이다. 그러나 푸비가 텍스트가 직접 표현 못 할 제인의 분노를 드러낸다고 말할 때 텍스트는 브론테의 의도와는 거리가 있는 개념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필자 역시 앞으로 텍스트라고 표현하겠지만, 이는 『테스』의 텍스트와는 조금 차이가 있음을 밝힌다.

존을 대표”하고, 아이가 나오는 꿈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여성들의 “무력감,” “좌절감,” “자아 부정,” 그리고 “저지된 분노”를 의미한다고 보았다(141). 그런데 이 꿈을 조금 다르게 해석하자면, 아이는 제인이 앞으로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버려야 할지도 모르는 — “Mrs. Rochester! She did not exist: she would not be born till to-morrow” (275) — 그녀의 자율성을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다. 다시 말해, 그녀가 꿈 속에서 안고 무거워도 버릴 수 없는 아이는 “말해야만 한다는”이라고 강하게 자아를 주장했던 그녀의 어린 시절부터 이어온 자아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 꿈은 그녀가 얼마큼 관습적인 결혼을 두려워하거나 이에 분노하고 있는지 말해준다. 그런데 이러한 감정들이 꿈으로 밖에 표현될 수 없는 이유는 “19세기에는 여성의 분노를 표현할 수 있는 풀듯이 없었기 때문에, 브론테가 자기 주장(self-assertion)의 형식을 천착할 때마다, 텍스트가 신경질적으로 균열을(splinters)” 내기 때문이다(Poovey 141). 우리는 이러한 텍스트의 균열을 이외에도, 어린 시절 붉은 방에 갇혔을 때의 제인의 비명, 세인트 존에 의해 위협 받을 때 그녀에게 들린 불가사의한 목소리 등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텍스트의 균열 내지는 발화는 제인이 아무리 개인화된 환경에 놓인 인물이라 할지라도, 그녀를 표현하는 목소리가 쉽게 나오는 것이 아닐 수 있음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제인과 테스의 주체가 남성들의 억압 속에서 각각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었는지 살펴보았다. 제인은 개인화된 환경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직접 글을 씀으로써 그녀의 주체를 스스로 강하게 단언하였다면, 테스는 비록 가족, 계급, 역사와 같은 사회의 거미줄에 묶여 있지만, 그녀의 행동과 텍스트를 통해 고유한 주체가 있음을 보였다. 제인과 테스는 서로 다른 듯하면서도 사실 매우 비슷한 인물이다. 그녀들은 각자의 세상에서 자신들의 주체를 위협하는 남성의 힘에 의해 억압되고 규정되어 왔지만, 이 속에서도 자신들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표현하였다. 제인은 말과 글로써 목소리를 내었고, 테스는 그녀의 모든 존재 자체를 통해 들리지 않는 목소리를 내었다. 무엇보다도 브론테와 하디는 이러한 여주인공들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혹은 은밀히 응원하고 지지하였다. 이들이 있었기에 현대에는 테스와 같은 억압적인 사회에 매여 있으면서도 보다 강하게 자신을 전달할 수 있는 목소리를 가진 제인들이 생겨날 수 있었으리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Armstrong, Nancy. “Gender and the Victorian novel.” *The Cambridge Companion to The Victorian Novel*. Ed. Deirdre David. Cambridge:

- Cambridge UP, 2001. 97-124.
- . *Desire and Domestic Fiction*. New York: Oxford UP, 1987.
- Belsey, Catherine. *Critical Practice*. New York: Routledge, 1980.
- Bock, Carol. "The Political Arts of Reading and Storytelling in *Jane Eyre*." *Charlotte Brontë and The Storyteller's Audience*. Iowa: U of Iowa P, 1992. 69-108.
- Boumelha, Penny. "Tess of the D'Urbervilles." *Thomas Hardy and Women: Sexual Ideology and Narrative Form*. Madison: U of Wisconsin P, 1982: 117-34.
- Brontë, Charlotte. *Jane Eyre*. New York: Oxford UP, 2000.
- Gilbert, Sandra M. and Gubar, Susan. "A Dialogue of Self and Soul: *Jane Eyre*." *The Madwoman in the Attic*. London: Yale UP, 1984. 336-71.
- Hardy, Thomas. *Tess of the D'Urbervilles*. London: Penguin, 2003.
- Kaplan, Carla. "Girl Talk: *Jane Eyre* and the Romance of Women's Narration." *The Erotics of Talk*. New York: Oxford UP, 1996. 71-98
- Kreilkamp, Ivan. "Unuttered: Withheld Speech in *Jane Eyre* and *Villette*." *Voice and The Victorian Storyteller*. New York: Cambridge UP, 2005. 122-154.
- Lecerle, Jean Jacques. "The Violence of Style in *Tess of the d'Urbervilles*." *Alternative Hardy*. Ed. Lance St. John Butler. New York: St. Martin's, 1989. 1-25.
- Morgan, Rosemarie. "Passive Victim? *Tess of the d'Urbervilles*." *Women and Sexuality in The Novels of Thomas Hardy*. London: Routledge, 1988. 84-109.
- Nemesvari, Richard. "The Thing must be Male, we suppose': Erotic Triangles and Masculine Identity in *Tess of the D'Urbervilles* and Melville's *Billy Budd*." *Thomas Hardy: Texts and Contexts*. Ed. Phillip Mallet.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2. 87-109.
- Pearce, Lynne. "Sexual Politics." *Feminist Readings/ Feminists Reading*. Hertfordshire: Prentice Hall, 1996. 23-55.
- Poovey, Mary. "The Anathematized Race: The Governess and *Jane Eyre*." *Uneven Developments: The Ideological Works of Gender in Mid-Victorian England*. Chicago: U of Chicago P, 1988. 126-63.
- Tanner, Tony. "Colour and Movements in Hardy's *Tess of the d'Urbervilles*." *The*

Victorian Novel: Modern Essays in Criticism. Ed. Ian Watt. New York: Oxford UP, 1971. 401-31.

유명숙. 「테스, 『테스』, 텍스트: 하디의 『테스』 다시 읽기」. 『현대영미소설의 이해』. 이상옥 외 지음. 서울: 아침이슬 2004. 114-133.

ABSTRACT

The Way Women Talk: The Voice of Heroine in *Jane Eyre* and *Tess of the D'Urbervilles*

Heeseung Han

Charlotte Brontë's *Jane Eyre* has been recognized as a representative feminist novel, for its heroine, Jane's ability to speak. On the other hand, Thomas Hardy's *Tess of the D'Urbervilles* has been criticized by some feminists mainly because of its heroine, Tess's passivity. Tess, however, also has her own voice and Hardy shows it differently. This paper examines how Jane and Tess speak out their opinions and thus construct their subjectivity in the oppressive patriarchal society.

From the beginning of the novel, we can hear Jane's own voice. Men, such as John, Rochester, and St. John, try to manipulate her and make her someone different from herself. Jane, however, does not lose her voice under their repression, and rather speaks herself through direct speech and writing. The ending of the novel, her marriage with Rochester, shows her final triumph. Jane can do that because she is apart from society compared to Tess, so she can have individual voice more easily. Moreover, the autobiographical form of the novel helps her do that.

In contrast, Tess's voice is rather weak. It is not because she is more passive than Jane, but because she is much more tied to society than Jane. She has to earn her living and take care of her family, and is placed in the time of long history of D'Urbervilles. It suggests that her words can not be free from the dominant language of patriarchy. Therefore, she cannot speak herself as freely as Jane. Instead, the text shows and 'speaks' Tess's voice, which indicates both her sensuality and innocence that men, Alec and Angel, fail to perceive.

Key Words feminism, women's voice, women's subjectivity, patriarchal language, text